

# 「변강쇠가」의 여주인공 용녀의 삶과 왜곡된 성(sexuality)

정미영\*

1. '강쇠'에서 '용녀'로
2. 용녀를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
3. 용녀의 삶과 섹슈얼리티
4. 소리의 사라짐
5. 결론

---

\* 인하대학교 국문과대학원 박사과정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사설 중 변강쇠가의 여주인공 응녀의 삶과 성에 주목한 글이다. 기왕의 논문들은 남자 주인공 강쇠를 중심으로 변강쇠가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여주인공 응녀에 주목하는 경우에도 그녀의 삶을 부각시키고는 있으나 응녀의 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했다. 본고는 변강쇠가의 여주인공 응녀의 삶과 성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변강쇠가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먼저 변강쇠가에서 여주인공 응녀를 바라보는 서술자 시선의 이중성을 밝혔다. 서술자는 조선시대의 하층민 여성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응녀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그녀의 삶 중 성적 부분만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관음적 시선으로 교묘히 즐기고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하여 수없이 개가하는 응녀를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잣대로 '음녀'로 규정하는 서술자의 남성적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런 서술자의 이중적 시선을 견어내고 응녀의 본다면 그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조선 하층민 여성의 전형이다. 그녀는 유랑 하층민인 강쇠와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감수하고 강쇠가 장승동티로 죽은 이후에도 남편의 치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때 그녀의 성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진다. 그러나 그것이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응녀의 성은 남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성이 아니라 현실의 수단이며 동시에 본원적 생명력의 근원으로 자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녀의 성은 조선사회의 가부장적 지배이념에 분명 위배된다. 남성 중심의 질서 속에서 여성의 성적 적극성은 타락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왜곡된 시선들 넘어 그녀의 성이 보여주는 삶의 적극성과 그 원천으로써의 섹슈얼리티는 응녀를 생동하는 인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응녀의 성이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주체의 몸짓이라기보다 본능적인 생존의 그것이고 무의식적인 저항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보이는 삶의 원천으로서의 성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서술 속에서 변강쇠가가 이룩한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핵심어 : 서술자의 이중적 시각, 음녀, 하층민 여성, 섹슈얼리티, 생존의 수단, 생명력의 근원.

## 1. '강쇠'에서 '응녀'로

「변강쇠가」는 여러 면에서 현전 판소리들과는 다르다. 판소리 여섯 마당에 포함되면서도 오늘날 창이 전해지지 않고 사실만 남아있는 유일한 판소리이고<sup>1)</sup> 작품 전후반의 구조와 성격이 어긋나는 점, 남녀 주인공이 음란 호색형 인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성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장승이나 매굿 등 민족 제의적 성격이 드러나는 점 등이 그러하다. 「변강쇠가」의 이런 특성 때문에 연구자들의 해석은 상이하다. 강쇠와 장승의 갈등을 계층간의 대립으로 파악하여 성애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거나<sup>2)</sup> 등장 인물들의 행로를 강조해서 하층 유랑민들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며<sup>3)</sup> 강쇠의 죽음 이후를 주목하여 민속 제의적 측면을 중심에 두기도 한다.<sup>4)</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 대부분이 남자 주인공 강쇠를 중심으로 「변강쇠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쇠를 중심으로 보면 강쇠와 장승의 대결이 작품의 주요갈등 구조로 떠오른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강쇠를 남근의 화신, 유랑민, 민중, 도시 전달, 원초적

---

1) 「변강쇠가」는 송만재(宋晩載)의 「관우희(觀優戲)」에 「변강쇠 타령」이라 하여 곡명이 처음 보이고, 신재효가 정리한 판소리 6마당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선 말기의 명창인 송홍록, 장지백 등이 소리를 잘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볼 때 적어도 19세기말까지는 판소리로 연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이후 소리의 전승이 끊어지고, 신재효에 의해 정착된 사실만 현존할 뿐 다른 판소리와 달리 소설화되어 전하는 것도 없다.

2) 김우탁, 『한국 전통 연극과 그 고유무대』(성균관대 출판부, 1978).

김우탁은 강쇠를 도덕적 굴레를 벗어나 성의 자유를 구가하는 남근의 화신으로, 장승을 유교이념으로 본다.

정병헌,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연구』(평민사, 1986), p.149.

정병헌은 응녀와 강쇠가 나누는 성행위를 그들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압력에 대항하는 의미라고 하여 김우탁과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다.

3) 서종문, 「변강쇠가와 유랑민의 삶」, 『신재효 연구』(태학사, 1997).

4) 박경신, 「무속제의적 측면에서 본 변강쇠가」, 『국문학 연구』(1985).

본능 등등으로 해석하고, 장승을 유교적 윤리관, 지배계층의 이념과 체제, 관권, 구시대의 제약, 공동체의식, 농촌 수호신, 초자아 등으로 해석하여 강쇠와 장승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장승의 의미가 무엇이던 간에 「변강쇠가」를 강쇠와 장승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만약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립관계라면 장승을 해친 강쇠를 징치(懲治)하는 것에서 이 작품은 매듭지어져야 한다. 흥부전에서 놀부에 대한 제비왕의 징치로 작품이 완결되듯이. 그런데 장승집단의 징치는 강쇠를 원혼으로 만들기 위한 이 작품의 중간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왜 강쇠는 원혼이 되어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여러 하층민 남성들을 죽이는 것일까?

강쇠를 중심에 두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박일용은 강쇠와 장승의 대결은 표면적이고 실상은 옹녀의 전략과정인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주인공 옹녀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sup>5)</sup> 기존 연구에서 여주인공 옹녀를 ‘음란성’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인물로만 규정함으로써 이 작품의 제목이 「옹녀가」가 아니라 「변강쇠가」인 것처럼 ‘징음(懲淫)’이라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부차적인 인물로 설정한 것에 비해 옹녀에 삶에 의미를 부여한 그의 연구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출현 역시 옹녀를 조선 후기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분적 차별과 성적 차별이라는 중층적 질곡에 처해져 있던 하층여성의 전형으로써 파악하였고<sup>6)</sup> 강진옥은 옹녀를 통해 유랑민의 정착의지가 나타난다<sup>7)</sup>고 하여 옹녀에게 긍정성을 부여하였다.

「변강쇠가」는 강쇠의 죽음을 전후로 하여 강쇠와 옹녀가 유랑생활

5) 박일용, 「변강쇠가의 사회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집문당, 1993).

6) 정출현,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여성형상과 그 의미」, 『민족 문학사 연구』 제7호(1995), pp.157~189.

7) 강진옥, 「변강쇠가」, 『판소리의 세계』(문학과 지성사, 2000) 참조.

에서 만나 결합하여 정착생활에 들어가지만 장승 동증으로 인해 강쇠가 죽는 전반부와, 강쇠의 죽음을 치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전반부와 후반부를 지탱하는 중심인물이 바로 옹녀이다. 옹녀와 그녀 주변에 성적 욕구를 가지고 몰려드는 남자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작품 전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옹녀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놓으면 옹녀의 삶과 함께 '옹녀'로 규정지어진 그녀의 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또한 「변강쇠가」를 옹녀의 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후반부의 구조적 파탄의 원인이 설명된다. 그런데 옹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연구들은 하층민 여성으로서의 옹녀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그녀의 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는 못하였다.

본고는 이런 그간의 연구 성과와 한계를 안고 여성인물 옹녀를 중심으로 「변강쇠가」에 접근함으로써 그녀의 삶과 성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로 옹녀의 삶과 성의 관계가 해명된다면 「변강쇠가」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옹녀를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

판소리의 서사는 서술자의 직접적인 진술과 작중인물의 행위와 대사를 재현하는 혼합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의 실상과 거기에 대한 서술자의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며 전개되는 것이다. 이런 서사에는 사건과 인물을 서술자가 직접 청자에게 이야기해주는 방식과,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재현하는 방식, 서술자의 목소리이기는 하나 작중인물의 의식 내지 감정을 대변해주는 경우 등 다중적인 방식이 동원된다. 이때 판소리의 모든 서사에는 서술자의 시선이 깊숙이 개입된다.

그런데 작중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작중인물과 사건을 재현하는 경우에 서술자의 시선이 개입되기는 하나, 신재효 사설의 경우에는 전승되어온 사실과 신재효의 개입이 서로 혼합되거나 부딪치면서 서술자의 직접 서술과 때로 괴리되는 측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변강쇠가」 역시 여주인공 옹녀를 보는 서술자의 관점이 작품 전체의 서사에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직접적인 해석이나 논평으로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옹녀를 음란하고 부정적인 인물로, 사건 자체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따옴표를 사용하여 그대로 재현할 때는 옹녀를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조선시대 하층민 여성의 전형으로 그리고 있다.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때 서술자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취사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위를 지닌다. 어느 부분은 세세히 전달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건너뛰기도 하며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다. 그런데 판소리는 한 개인에 의해서 창작된 것은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조금씩 덧붙여지고 수정되며 적층된 문학장르이다. 판소리를 연창하는 개인은 자신의 창의에 의해 사실을 구조화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청중과의 대면을 통해 그것을 수정하고 재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소리의 적층성은 판소리 사실이 향유 집단의 공동체적 현실, 즉 시대와 현실의 구조를 반영하고 공동체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판소리 서술자는 한 개인이기보다 집단인 것이다. 때문에 「변강쇠가」에 보이는 옹녀에 대한 서술자의 이중적인 관점은 확정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으나 민중세계에서 불려진 「변강쇠가」와 신재효에 의해 ‘정리’된 「변강쇠가」사이의 계층적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할 것이고,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대의 가부장적 관점의 이중성에도 그 원인 있을 것이다.

㉔ 양도가 휘가하여 쫓아내니, 이 년이 하릴없이 쫓기어 나올 적에, 파랑 붓짐 옆에 끼고, 동백기름을 많이 발라 낭자를 곱게 하고, 산호 비녀 찢렸으며, 나들이 장옷 엇매이고, 행동행동 나오면서 혼자 악을 쓰는구나 (「변강쇠가」, p.251)<sup>8)</sup>

㉕ 한참 이렇게 통곡한 후에 사자밥을 지어 놓고 옷깃을 잡아 초흔하고 혼잣말로 자탄하기를

“무아지경 이 산중에 나 혼자 울어서는 남군 치상을 할 수 없어 시중출호(尸虫出戶)가 될 것이니 대로변에 앉아 울어서 오입남자를 만난다면 치상을 할 수 있을 듯하니 그 수가 올겠다.”

하고 상부에 이력이 있어서 소복은 많겠다. 생서양포(生西洋布) 깃저고리, 종성 내의, 생베치마, 외씨 같은 고운 발에 삼승버선 엄신 신고 구름같이 풀어제친 머리 흐트러지게 집어 없으니 도화색 두 뺨 가에 눈물 흔적 더 예했다.-중략-

이것이 목은 서방 생각이 아니라 새서방 후리는 목이니 오죽 맛이 있겠는가.(p.303)

㉔의 경우는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진술이다. 이 장면에서 용녀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은 삶의 기반인 마을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용녀의 처지를 동정적으로 보기보다 용녀를 모습을 성적으로 희화화시키는 부정적인 것이다. ㉕의 밑줄 친 따옴표 안에는 남편이 죽고 길가에서 오입 남자를 후릴 수밖에 없게 된 동기를 용녀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죽은 남편의 치상을 위해 몸이라도 팔아야하는 용녀의 절박한 상황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㉕의 강조된 부분에서 서술자는 그런 용녀의 행위를 ‘음녀’의 그것으로 다시 왜곡하고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용녀의 직접적인 행동이나 발언에서는 당대 하층

8) 김태준 역주, 「변강쇠가」, 『한국고전 문학 전집 14』(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1995) 이후로는 인용된 면수만을 밝히는 것으로 한다.

민 여성의 비참한 삶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는데 반해 옹녀가 서술자의 수동적 응시의 대상이 될 때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여 옹녀의 행위를 실제 이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여 그녀를 음녀로 만든다. 때문에 작중인물의 실제 행동과 대사로만 「변강쇠가」의 옹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옹녀는 상부살이라는 운명 때문에 마을에서 축출 당하고 잡놈인 강쇠를 만나서 그와의 삶을 영위하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는 인물이다. 또한, 강쇠가 죽은 후에도 도망가지 않고 몸을 팔아서라도 치상하여 아내로서의 의리를 지키려하는 여성이다.

㉔ 연놈이 손목잡고 도망 각처 다닐 적에 일 원산, 이 강경이, 삼 포주, 사 범성이 곳곳이 찾아 다녀 계집넌은 애를 써서 들병장사, 막장사며, 낮부림, 녀장질에 돈냥 돈관 모아 놓으면 강쇠놈이 허망하여 땃냥내기, 방패리기, 호홍호백 쌍륙치기, 장군 명군 장기두기, 맞쳐먹기-중략-그 중에 무슨 비위 강새암, 계집치기, 밤낮으로 싸움이니 암만해도 살 수 없다.(p.261)

㉕ 강쇠의 평생 행세 일하여 본 놈이나. 낮이면 잠만 자고 밤이면 배만 타니 여인이 할 수 없어 애절히 정설한다. “여보, 낭군 들으시오, 천생만민 필수지직 시람마다 직업 있어 양사부보하육쳐자 녀넉히 한다는데 낭군 신세 생각하니 어려서 못 배운 글 지금 공부 할 수 없고 손재주 없었으니 장인질 할 수 없고, 밀천 한 푼 없으니 상고질을 할 수 있나? 그 중에 할 노릇이 상일밖에 없으니 이 산중 살자 하면 산전을 많이 파서 두태, 서숙, 담배 갈고, 갈퀴나무, 비나무며 물거리 장작패기 나무를 많이 하여 집에서도 때려니와 지고 가 팔았으면 부모 없고 자식 없고 단 부처 우리 둘이 생계가 녀넉할 새, 건강한 저 신체에 밤낮으로 하는 것이 잠자기와 그 노릇뿐. 굶어 죽기 고사하고 우선 얼어죽을 테니 오늘부터 지게 지고 나무나 하여 읍쇼.”(p.263)

㉖ 방문을 닫고서 뜰 가운데 홀로 앉아, 송장에게 정설을 하며 자탄 신세로 우는 것이었다.



“어보소, 변서방아, 어찌 그리 무정한가. 청석관에서 만난 후에 각 포구로 다니면서 간신히 모은 전량 잡기로 다 없애고, 산중살이 하겠더니 장승은 어이 패어 때서 목신 동중으로 소년 죽음 모두 자네가 자취한 일로세. 49일 병구완할 제 내 간장이 다 녹았네. 험악한 저 신체를 할 수 없어 대로변 가는 중을 간신히 흘렸더니, 몸도 허락한 일도 없이 강짜를 하느라고 송장치러 간 사람을 저 죽음 시켰으니, 이 소문이 또 난다면 송장 칠 놈 있겠는가? 송장만 처낸 후에 자네의 유언대로 수절을 할 테이니, 다시는 강짜마소. 애고 애고 내 신세야. 치상을 누가 할꼬.”(p.311)

위의 인용문은 웅녀의 고단한 결혼생활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인용문 어디에도 그녀를 음녀로 불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는다. 서술자 역시 웅녀에게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㉔에서도 역시 게으르고 도박을 일삼으며 게다가 폭력까지 휘두르는 강쇠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온갖 궂은 일과 매음까지 감당하는 고달픈 웅녀의 삶에 대해 서술자는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㉒, ㉓의 발언들은 결혼과 가정을 유지하려했던 웅녀의 안간힘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자신을 죽어서까지 괴롭히는 남편 강쇠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육아매는 비참한 운명을 한탄하는 ㉓의 발언에는 깊은 한이 서려있다. 이렇게 웅녀의 말이 따옴표로 옮겨져 그대로 재현되거나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정서나 의식을 드러내는 경우에 웅녀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은 동정적이다. 그런데도 왜 서술자는 비참한 하층민 여성의 삶을 음녀의 그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웅녀의 인생 중에서 성적 측면만을 과장하여 그것을 즐기는 남성적 서술자의 관음적인 시선과 관계있다.

㉔ 2,3년씩 걸러 가며 상부를 달할지라도 소문이 흉악할텐데 한해에 하나씩을 전례로 처지하되, 이것은 남이 아는 기등서방, 득 다음은 셋서방, 애부, 거드모리, 새호루기, 입 한 번 맞춘 놈, 젓 한 번 쥘 놈, 눈 흘레한 놈, 손 만져 본 놈, 심지어 치마귀에 잠시 사정을 얼른 한 놈까지 모두 결단을

내는데, 한달에 한 못을 넘겨, 일년에 한 묶음 한 동 일곱 못, 윤달이 든 해면 두 동 못수 대고 씻어낼 제, 어떻게 쓸었던지 삼십 리 안팎 상투 올린 사나이는 고사하고 열 다섯 녀은 총각도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가 짚을 이니 황해 평안 양도가 공론하기를,

“이 년을 두었다가는 우리 두 곳에 좃 단 놈이 다시없고 여인국이 될 터이니, 좃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p.251)

㉔ 저 계집 거동보소. 한 걸음에 급히 와서 사면에 황토 놓고 목욕하며 재개하고, 뺨 의복 내어 입고 살막이 떡과 과일 채소를 차려 놓고 앉아 있으니, 송봉사가 건너왔다. 문 앞에 우뚝 서며,

“어떻게 다 차렸는가?”

“예, 다 차려 놓았소.”

“그러면 경을 읽지.”-중략-

경을 다 읽은 후에,

“자네 경채를 어찌 하려나?”

저 계집 하는 말이,

“경채나 서울빛이나 여기 있소.”

돈 한냥을 내어 주니,

“내가 돈 달라고 했나? 그 새콤한 것 안 있나.”

“어, 맞으시오. 짐작은 터에 그게 무슨 말씀이오.”(pp.290~291)

㉕ 저 중이 좋아하고 양갓 감투 벗어찢고 공단 갓근 금관자를 주머니에서 떼어 넣고, 장삼은 벗어 띠로 묶어 어깨에 들어 매고, 여인은 앞에 서고 대사는 뒤에 서서 강쇠 집을 찾아올 제, 중놈이 좋아하며 장난이 비상했다. 여인의 등덜미에 손도 썩 넣어보고, 젖도 불끈 쥐어보고, 허리도 질끈 안아보고 손목도 짝 잡아보며,

“암만해도 못참겠네. 우선 한번 하고 가세.”

여인이 책망하여,

“바빠 먹으면 목이 메고 급히 더우면 쉬 식는 것이니, 여러 해 주린 식심 아무리 그리하지만, 죽은 가장을 방에 두고 새 낭군과 그 노릇이 내 인사에 되겠는가? 다 되어 가는 일이니 마음을 조금 진정하소.”(pp.308~309)

위의 ㉗는 청상살로 인해 옹녀가 마을에서 쫓겨 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㉘는 장승 동중으로 병든 강쇠를 위해 송봉사를 청해 독경을 외는 장면이며 ㉙는 중을 유혹하여 죽은 남편의 치상을 하러 가는 옹녀의 모습이다. ㉚에서 서술자는 옹녀의 불우한 처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녀를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즐기고 있으며, ㉛,㉜에 등장하는 소경과 중은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옹녀를 동정하기보다 오로지 쾌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들을 사람의 도리로서 진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옹녀이다. 이렇게 변강쇠가의 모든 남성들-서술자, 남성 등장인물-에게 옹녀는 다만 성적인 대상일 뿐이다.

옹녀는 조선시대를 지배하던 가부장제의 시선으로 보자면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수없이 개가한 음녀이다. 이 관점으로 보자면 음녀의 성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타락한 ‘노는 계집’의 그것일 뿐이다. 때문에 서술자는 도덕적 정당성을 내세워 옹녀를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감각적 차원에서 그녀의 성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서술자의 태도는 청자로 하여금 서술자의 관점대로 옹녀를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때문에 작품 속에 존재하는 서술자의 시선과 청자의 시선이 쉽게 일치되어 옹녀의 성을 남성적 입장에서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술자와 당대의 변강쇠가의 수용층인 남성들이 옹녀의 성을 관념적인 차원이지만 교묘히 착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옹녀가 처해진 하층민 여성의 비참한 삶보다는 그녀의 성에 초점을 맞추어 옹녀의 섹슈얼리티를 과장하고 왜곡시켜서 즐기고 난 후 그것을 징음과 일부일처제라는 교훈적인 주제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품에서 옹녀를 음녀로 바라보는 시선은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의 시선이며, 그러한 형상을 보고 즐기는 남성 향유층의 시선이야말로 가부장제의 불건전한 성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 3. 용녀의 삶과 섹슈얼리티

남성적 서사 관점을 걷어내고 용녀라는 인물을 살펴보자. 작품의 인물 묘사를 통해 본다면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자이다.

얼굴로 볼작시면, 춘이월 반개도화 옥빈에 어리었고, 초승에 지는 달빛, 야미간에 비추었다. 앵도순 고운 입은, 빛난 당채 주홍필로, 떡 들입다 꼭 짝은 듯, 세류 같이 가는 허리, 봄바람에 흐늘 흐늘, 쩡그리며 웃는 것과, 말하며 걷는 태도, 시시와 포사라도, 따를 수는 없건미는(p.249)

위의 묘사는 고전 작품에서 흔히 보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용녀의 비범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빼어난 용모를 가졌음에도 용녀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다.

사주에 청상살이 겹겹히 쌓이고로 상부를 하여도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단콩 주워먹듯 하겠다. 열 다섯에 얻은 서방, 첫날밤 잠자리에, 급상한에 죽고, 열 여섯에 얻은 서방, 당창병에 튀고, 열일곱에 얻은 서방, 용천병에 죽고 열 여덟에 얻은 서방 벼락 맞아 식고, 열 아홉에 얻은 서방 천하의 대적으로 포청에 떨어지고 시물살에 얻은 서방 비상 먹고 돌아가니, 서방에 튀가 나고 송장치기 신물난다.(pp.250~251)

용녀는 열다섯에 처음 결혼하여 남편과 사별하고 매해 재가하나 그때마다 과부가 되고 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남편들이 죽는 이유가 그녀의 청상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운명은 남편뿐 아니라 그녀와 성행위를 하거나 스치는 모든 남자마저 죽게 한다. 결국 그녀는 '이년을 두었다가는 우리 두 고을 좃 단 놈 다시없고 여인국이 될 터'라는 황해도와 평안도 양도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집

이 불태워지고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

아름다운 여성은 ‘그녀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남성들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여성이 가부장적인 규범에 순종적이지 않을 때 여성에게는 가차없이 악마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sup>9)</sup> 사실 용녀의 남편들은 사고사나 질병, 또는 범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지만 그녀의 매혹적인 용모와 자유로운 성관념은 용녀를 남성들의 죽음의 원인으로 쉽게 지목 당할 처지에 놓이게 한다. 결국 남성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쓴 채 용녀는 집단으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견고한 동족 부락 단위로 구성된 당시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그녀에게 정상적인 삶의 가능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었음을 의미한다.

왜 용녀는 남편과 거뜨거뜨 사별하고 주위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개가하여 새로운 남자를 만나야 했을까? 우리 나라에서 과부들의 개가가 금지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이다. 세종에서 성종대에 걸쳐 『삼강행실도』, 『내훈』 등의 교화서가 반포되었고,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이 완성됨으로써 사대부 계급의 여성통제가 이념적, 법제적으로 확립된다. 성종 대에 이루어진 사족부녀(士族婦女)에 대한 재가 금지법은 여성 통제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15세기에 확립된 주자학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16,17세기에 하층계급까지 확산되어 일반화되었다.<sup>10)</sup> 이러한 조선후기 상황에서 과부가 재가한다는 것은 정조를 잃는 것이고 개가한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용녀는 남편이 죽을 때마다 개가하고 있다. 이는 부녀가사의 하나로 세 번 개가한 「덴동어미화전가」의 주인공 덴동어미나,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9) 팸 모리슨, 『문학과 페미니즘』(문예 출판사, 1997), p.45.

10) 한희숙, 「양반사회와 여성의 지위」,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일조각, 1994) 참조.

개가에서 남편 장끼를 잃고 다시 여섯 번째 개가하는 『장끼전』의 까투리라도 겹쳐져 읽힌다. 이들 모두는 하층민이다.<sup>11)</sup> 남성 전권 사회에서 과부는 수절하는 것으로 칭송 받는데, 수절도 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진 여성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여자가 홀로 자립하여 살아갈 아무런 경제적 장치가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하층민 여성의 개가 금지의 생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하층민 여성에게 재가는 생존을 위해 부양해 줄 남자를 찾아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들은 텐동어미의 고백처럼 “어떻게동 살아볼라고” 사회적 비판과 불이익 속에서도 개가를 선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정조니 하는 것들은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결국 조선시대 하층민 여성인 옹녀는 ‘서방에 퇴가 나고 송장치기 신물’이 남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계속 개가한다. 그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당하여 유랑의 길에 오른 옹녀는 청석관에서 이미 유랑하고 있던 강쇠를 만나 성관계를 통해 또 다시 개가한다. 그런데 변강쇠는 “천하에 잡놈으로 삼남에서 빌어먹다 양서로 가노라고” 하는 부랑자이다. 강쇠는 이제 막 유랑의 길에 오른 옹녀를 만나자마자 피어 대낮에 개방된 공간에서 성관계를 맺는다.

옹녀는 당대 사회가 여성에게 부과하는 정절이라는 덕목을 어기고 수없이 개가하여 집단에서, 사회적 인습에서 밀려난 인물이다. 강쇠 또한 천하의 잡놈으로 일정한 근거지 없이 떠도는 인물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인 상부살에서 벗어나기를 강렬히 희망하는 옹녀에게 강쇠의 ‘궁합’이라는 유혹은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이 기대가 대낮에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맺게 했을 것이다. 인간에게 성은 오랫동안

11)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텐동어미화전가」, 『인제논총』 제8권, 제2호 (1992) 참조.

정출현, 「장끼타령」, 『판소리의 세계』(문학과 지성사, 2000) 참조.

안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이었다. 또한 성행위와 용어는 금기시 되어왔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의 관습적인 성의 금기를 깨고 자유롭게 바위 위에서 벌이는 대낮의 성행위는 용녀가 자신을 유랑으로 내몬 많은 타의-정절이데올로기, 운명-의 힘에 꺾이지 않고 여전히 건강한 삶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성기를 보면서 노래하는 대목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꽃감이 있고 으름있고 조개있고 연계있고 제사 장 볼 걱정은 없다.(p.255)

용녀가 화답하여 강쇠의 성기를 보고 노래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물방아 절굿대며, 쇠고빼, 결랑, 동물, 세간살이 걱정없네(p.256)

위의 구절에서 강쇠는 용녀의 성기에서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또 용녀는 세간살이를 연상하고 있다. 이는 생식행위를 통해 대를 잇고자 하는 남성인 강쇠의 욕망과, 정착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싶은 여성인 용녀의 소망을 보여준다.<sup>12)</sup>

가정을 이룬 용녀는 강한 생활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도방살이를 하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 용녀와는 달리 오랜 유랑 생활이 몸에 젖을 대로 젖어 버린 강쇠는 무능력하고 폭력적이며 오로지 용녀의 성만을 탐닉하려 든다. 결혼을 통해 성의 결합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바라던 용녀의 희망은 부랑자의 전형적 성격을 보여주는 강쇠에 의해 좌절되고 마는 것이다.

용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낮부림, 막장사에 매음의 일종인 들

12) 서종문, 「변강쇠가 연구」, 『판소리 사설 연구』(형설출판사, 1984), p.233.

병장수로 나서기까지 한다. 잡기와 싸움질로 소일하며 결국에는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하는 강쇠를 지아버로 섬기며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옹녀의 모습은 억척스럽다. 그리고 이 억척스러움은 조선 사회의 가부장적 지배에서 빚어지는 남성의 횡포와 함께 생계의 책임까지 떠맡은 불운한 하층민 여성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녀는 매음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의 '음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방탕한 남편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결국 옹녀는 도망살이를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 정착생활을 하자고 강쇠를 달랜다. 그러나 지리산에 입산하자마자 강쇠는 장승 동중으로 죽음을 맞는다.<sup>13)</sup>

그런데 강쇠가 장승을 불태려고 할 때 이를 말리는 옹녀에게 강쇠가 던지는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안 일은 가장에게 맡기는 것이라, 가장이 하는 일을 보기만 할것이지 계집이 요망하여 그것이 웬 소린고. 진나라 충신 개자추는 면산에서 불에 타 죽었고 한나라 장군 기신이는 형양에서 불에 타 죽어 참 사람이 타 죽어도 아무 탈이 없는데 나무로 깎은 장승이 사람 형태를 가졌다 하더라도 패어 맨들 관계될까? (pp.273 - 274)

충신들이 타죽어도 아무런 응징이 없는 역사적 사실을 들먹이는 이 구절은 장승이라도 패어 때야 하는 하층민의 삶을 비난할 어떠한 근거

13)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강쇠가 장승을 패다 때어서 죽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남근 숭배사상의 야유적 상징이며 인간적인 욕망을 과감하게 발휘한 영웅적 죽음으로 보는 관점(김영길, 『변강쇠가의 희극적 구조』, 『한국 시가의 재조명』(운 출판사, 1984)) 장승이 교통신의 요지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의 상징으로 강쇠가 장승을 펜 것은 유랑생활을 청산하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서종문, 위의 책), 장승을 유교 이념의 표상이며 관권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설성경, 『고소설의 의미와 구조』(새문사, 1986)) 등 연구자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이 해석에 따라 변강쇠가의 후반부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진다.



도 없다는 사실,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한다는 하층민 삶의 절박감이 잘 드러나 있다.<sup>14)</sup> 이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도 강쇠의 죽음으로 무참히 좌절된다. 웅녀에게 고통을 안겨준 강쇠도 조선사회에서 생존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소외된 하층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강쇠의 성행위에 대한 집착은 조선 사회 권력구도에서 하위 계층으로 겪어야 했던 피해의식이 자신보다 더 불리한 여성을 성으로 지배하려는 보상 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강쇠에게 성은 현실의 도피처이고 또 다른 억압의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그의 유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자네는 양서 사람이고 내 몸은 삼남 사람으로, 하늘이 지시하고 귀신이 중매하여 오다가다 맺은 연분이나 죽자살자 깊은 맹세는 단산에 봉황이오 녹수에 원앙과도 같다. 잠시도 이별하지 말고 백년해로 하겠더니 -중략-독수공방 저 신세 여생이 불쌍하구나. 자네 정경이 가궁하여 아무리 살자 하되 병세가 지독하여 기여이 죽을 터이니, 이 몸이 죽거들랑 연습하고 입관하기를 자네가 손수하고, 출상할 때 상여 배행이며 시묘 살아 조식 상식이며 삼년상을 지낸 후에 비단 수건 목을 잘라 저승으로 찾아오면 이생에 미진한 연분 끊어진 인연을 이어 다시 짝이 되겠지만, 내가 지금 죽은 후에 사나이라 명색하고 열 살 아래 아이라도 내 몸에 손대거나 집 근처에 얼른 하면 즉각 급살할 것이니 부디부디 그러하소.”(p.299)

강쇠에게 웅녀의 성은 소유의 대상으로써의 성이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독점되어야 마땅한 성인에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그것을 야기한 당대 사회의 조건 속에서 그러한 독점에 이르지 못한 성이기도 하다. “남의 계집 바라보며 눈웃음 하는 놈”들과 공유할 수밖에 없었던 웅녀의 성에 대한 강쇠의 집착은 죽음을

14) 서종문·정병현, 「변강쇠가와 유랑민의 삶」, 『신재효 연구』(태학사, 1997), pp.338~341.

앞두고 그녀에게 수절을 요구한다. 옹녀에게 치상과 수절, 죽음을 강요하는 강쇠의 유언은 이제까지 옹녀가 살아온 삶에 반하는 것으로 옹녀에게 유교적인 여성 윤리관에 부합하는 열녀가 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 내부의 성적 에너지로 표출되는 강한 삶의 열망을 억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옹녀는 그대로 도망가지 않고 지아비의 치상을 해결하기 위해 몸을 미끼로 하여 남정네를 유혹한다. 이런 옹녀에게 '묵은 서방 생각이 아니라 새서방 후리는' 이라 하여 또 한번의 음란성의 혐의가 덧씌워진다. 그러나 죽은 남편을 치상하기 위해 대로변에 상복을 입고 나와 남자를 유혹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의 성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생존의 절박함 속에서 하층민 여성의 성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들의 성은 쉽게 폭력에 노출되어있으며, 고귀하게 소유하거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 주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렇다고 해서 옹녀의 성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이해하는 것은 옹녀의 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인이 게으른 강쇠에게 간장이 다 녹다가 이 손님의 거동을 보니 부지런하기 더할 나위 없어 짐대 끝에 앉았어도 정녕 굶지 않겠구나. 애절히 대답하기를,

“가난한 내 형세에 돈은 없고 곡식도 없어 치상을 한 연후에 부부되어 살 터이다.”

초라니가 도 덤병거리며,

“얼씨구나 멋있구나, 절씨구나, 종을씨고. 폐, 덩동당. 맛속 있는 오입장이 일색미인을 만났구나. 시체 방문 어서 여시오, 내 숨씨로 쳐서 별계. 폐, 덩동당.”(p.315)

저 놈이 대답하기를,

“예, 나는 서울 사는 뱀득이 김서방인데, 재상댁 마중으로 경상도 황산 역에 좋은 날이 있다가에 그리로 가다가, 마느라가 일색으로 가군이 험사 하여 치상하여 주는 사람 짝을 지어 살자는 말이 삼남천지 떠들썩하여 전 하기에, 먼길을 불원하고 찾아왔소.”

여인이 또 묻기를,

“서울서 사시고 신수 저리 건장한데, 그만 송장 염려하여 버리고 가시는 것은, 내 얼굴이 누추하여 당신 눈에 아니드시오.”

-중략-

허리를 질끈 안고 온가지 어리광에 백만 교태를 다 부리니, 사울 사나이 라 뒤가 탁 풀리는데 허리에 먼 전대로 눈물을 씻기면서

“울지마소, 울지마소. 아니감세, 아니감세. 죽으면 내가 죽지 자네 죽게 하겠는가?”(p.331)

위에서처럼 웅녀의 성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존하기 위해 쓰여지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것이 자포자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웅녀의 성은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는 성은 분명 아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성적 에너지가 넘쳐나며 그것을 통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 한다. “신세를 생각하면 해당화 저 가지에 목을 매어 죽을 것이로되, 설부화용(雪膚花容) 이내 태도 아직 청춘이 멀었으니”라며 일곱 번째 상부를 당하고도 ‘도화빛 두 눈가에 눈물 흔적’ 가득하여 남자를 호리기 위해 ‘백만 교태’다 부리는 그녀에게 성은 현실적 수단이며 동시에 본원적 생명력의 근원으로써 작동하고 있다. 웅녀가 강쇠의 가부장적 요구에 충실하려 해도 그녀의 내부에서 에너지로 분출되는 성은 그것을 배반하며,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성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웅녀가 남자를 호리기 위해 길거리에 나왔어 있어도 그것은 절망보다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

는 행위로 읽힌다. 초라니의 텀벙거리는 행동을 보며 '밥은 굶지 않겠구나' 판단하거나 '돈도, 곡식도 없으니 부부되어 살터'라는 그녀의 발언이 당연한 것은 이 때문이다. 때문에 그녀의 삶은 비참하지만 그녀의 섹슈얼리티는 아름답다. 옹녀의 성은 작품 외부와 내부를 싸고 있는 가부장적인 시선에도 전혀 위축되거나 오염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피해가지도 않으며, 뻔뻔스러울 만치 당당하고 능동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옹녀의 성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부장적 유교적 관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질서 속에서 여성의 성적 적극성은 타락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왜곡된 시선들을 넘어 옹녀가 보이는 삶의 적극성과 그 원천으로써의 섹슈얼리티는 옹녀를 생동하는 인물로 만들고 있다. 삶의 수단이기도 하고 본질이기도 한 그녀 내부의 충만한 성적 자질은 그녀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불행을 예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옹녀의 섹슈얼리티는 그녀를 봉건사회 말기의 하층민이라는 계층적 모순과 완강한 가부장제의 질곡이라는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도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여성 인물형으로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변강쇠가」가 옹녀와 장쇠의 유랑민의 고단한 삶과 장쇠의 비참한 죽음, 계속될 그녀의 유랑과 매춘의 짐작으로 이루어진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에게 눈물보다 웃음을 유발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로 작품 내부에 존재해 해있는 옹녀의 성적 에너지가 가진 힘 때문이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잡초와 같이 일어서는 옹녀의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성적 에너지로 분출되어 이 작품의 비극성을 희망과 웃음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다.

#### 4. 소리의 사라짐

작품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야기의 구조는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강쇠의 죽음이후 등장하는 여러 유랑 연예인(초라니, 명창가객, 통소쟁이, 무동, 가야금주자, 북 치는 사람 등)의 출현으로 유희적 요소는 더욱 강화되고 웅녀의 역할은 축소된다. 마침내 웅녀는 배가 고프니 ‘짚 두어 묶음 얻어’ 오라는 뱀득이 말을 듣고 마을로 내려간 후에 이 작품에서 사라지고 만다. 뱀득이가 웅녀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돌아간 후에도 웅녀의 후일담은 보이지 않는다. 이 웅녀의 사라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웅녀는 강쇠와의 결혼을 통해 안정과 정착을 원하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하였다. 웅녀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가부장의 보호 아래의 삶이었다. 강쇠의 폭력과 부당한 유언과 죽음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모습과 새로운 남자를 찾는 웅녀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대치되나 이것은 그녀가 당대 사회의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 ‘남편’, 즉 가부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웅녀 역시 당대를 지배하던 가부장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성은 한 가부장에게 소유되거나 독점되지 못했다. 소유되지 못한 웅녀의 섹슈얼리티는 그녀를 당대의 음녀로 비난받게 하였으나 동시에 웅녀의 삶을 ‘인간답게’ 한다. 때문에 웅녀 성은 그 어떤 윤리도덕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변강쇠가」에서 웅녀를 음녀로, 웅녀의 성을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재단하려 해도 그녀의 성은 억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웅녀의 성을 음녀의 것으로 규정하는 작품 내·외부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시선은 그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유희적으로 즐기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녀의 삶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결말에 이르러 옹녀의 무의미한 사라짐, 작품 구조의 파탄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변강쇠가」의 청자들은 후반부의 죽음과 관련된 기괴한 사건들에 일시적인 흥미를 느꼈을지는 모르나 거기서 어떠한 새로운 시대의 전망을 제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층민의 현실에서 성만을 떼어내 파편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조선후기 민중사회의 모순에 육박해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민중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판소리의 주인공은 춘향이는, 흥부이든, 심청이든 간에 그들은 주어진 현실과 운명을 극복하고 무언가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고난의 현실에서 소망을 이루어 인생역전을 이룬다. 이러한 인물들은 당대 민중의 꿈이 투사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아무도 기생인 춘향이가 양반과 결혼하여 정승부인이 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봉사의 딸이 황후가 되었다고 그 허황함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는 판소리의 향유층인 민중이 기존의 가치나 논리에 단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판소리는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인간형의 제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민중의 장르로 살아있는 것이다. 하층민 여성의 비극적 삶을 양반사회의 가부장제의 시선으로 재단한 「변강쇠가」의 문학적, 예술적 실패는 이런 판소리의 본질에 비추면 당연한 결과이다. 결국 실창(失唱)되어 소리의 생명도 끊기고 만다.<sup>15)</sup> 또한 이것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적층성과도 관계있을 것이다. 판소리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향유층이 민중에게서 양반층으로 확대되었고 변하는 향유층

15) 신재효가 당시 창으로 불렸던 9마당 중에 6마당을 선택할 때 포함된 변강쇠가가 다른 5마당과 다르게 창을 상실한 이유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음란성 때문에 당시 판소리 향유층이던 양반층에게 수용되지 못했다는 설명, 강한 무속제의적 성격 때문에 창자들이 기피했을 것이라는 추측, 주인공 변강쇠의 파멸과 죽음이라는 반민중적인 결말과 판소리 향유층의 보수적인 세계관이 반영 서술됨으로써 19세기 사회현실의 리얼리티와 전망을 상실한 것 등에서 실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의 구미에 맞게 수정되고 덧붙여지면서 이야기가 변질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변강쇠가」의 이중적인 서술 태도와도 관계있다. 이 작품이 확보한 유랑하는 하층민의 삶에 대한 리얼리티와 왜곡된 성의식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은 「변강쇠가」가 민중세계에서 창조되었을 때와는 달리 양반 수용층에 의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5. 맺음말

인간에게 성은 오랫동안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문학이 인간의 구체적 삶을 생생히 담아내는 텍스트라면 인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에 대해서 외면 할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의 성은 당대의 사회 정치적인 관계들과 맞물려 있어서 그 사회의 본질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변강쇠가」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고하던 조선후기에 웅녀라는 음녀를 창출함으로써 우리 문학사에 여성의 성의 문제를 정면에 던져 놓았다. 여주인공 웅녀의 성이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주체적인 몸짓이기 보다 본능적인 생존의 몸짓이고 무의식적인 저항의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보이는 삶의 원천으로써의 성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남성중심의 왜곡된 서술 속에서도 「변강쇠가」가 이룩한 값진 성과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는 부정당해 왔고 여성의 주체적 성적 태도나 성적 향유능력은 죄악시 되어왔다. 성은 남성의 욕망에 부합되게 만들어지고 재판, 관리되어 온 것이다. 이것은 성이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권력에 의해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웅녀를 음녀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작품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시선

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여성이 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잣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선은 오늘날 까지도 옹녀에게 음녀의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현대판 옹녀를 재생산하여 쾌락적으로 즐기고 있다.

그러나 「변강쇠가」의 여성주인공 옹녀는 이러한 시선에 오염되지 않고 당대 하층민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구체적 삶이 만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남성 중심적 성윤리를 뒤집고 있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작품내부에서 성취되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의 길로 옹녀를 몰아내고 있지만 이런 결말이야말로 ‘여행은 시작되고 길은 끝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영길, 「변강쇠가의 희극적 구조」, 『한국 시가의 재조명』(운출판사, 1984), pp.153~168.
- 김우탁, 『한국 전통 연극과 그 고유무대』(성균관대 출판부, 1978), pp.6~209.
- 김태준 역주, 「변강쇠가」, 『한국고전 문학 전집 14』(고려대 민족문화 연구소, 1995), pp.248~359.
- 박혜숙, 「여성문학의 시각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인제논총』 제8권, 제2호 (1992), pp.383~400.
- 서종문, 「변강쇠가 연구」, 『판소리 사설 연구』(형설출판사, 1984), p.233.
- , 「변강쇠가와 유랑민의 삶」, 『신재효 연구』(태학사, 1997), pp.315~380.
- 설성경, 『고소설의 의미와 구조』(새문사, 1986), pp.369~384.
- 정병현,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연구』(평민사, 1986), p.149.
- 정출현, 「장끼타령」, 『판소리의 세계』(문학과 지성사, 2000), pp.312~326.
- 팸 모리슨, 『문학과 페미니즘』(문예 출판사, 1997), p.45.
- 한희숙, 「양반사회와 여성의 지위」, 『한국사 시민강좌』 제15집(일조각, 1994), pp.4~200.



Abstract

## The Life of Ongneo, the Heroine of *Bungangse-ga* and Distorting Sexuality

Jung, Mi-Young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life and the sexuality of Ongneo, the heroine of *Bungangse-ga*, which is one of the accounts that Shin, Jae-hyo puts in order. Other theses up to now have approached to *Bungangse-ga* by paying more attention to Gangse who is the hero. Even if the thesis is focused on Ongneo, it only highlights her life, but fails to explain actively the meaning of the sexuality of Ongneo. This thesis tries to find new meaning that *Bungangse-ga* has by putting emphasis on the life and the sexuality of Ongneo.

First, it clarifies the dual view of the narrator. The narrator turns sympathetic eye on her who lives a miserable life as a woman from the lower class in Cho-sun dynasty, while he dexterously enjoys her life by distorting and exaggerating the sexual aspect of it in an obscene view.

It is caused by the narrator's masculine view, which defines the countless marriage for the purpose of survival as a 'lewd woman' by the standard of male-centered social system in Cho-sun dynasty. If we see her without such a dual view, she is the stereotype of the female from the lower class in Cho-sun dynasty.

She endures all the ordeals to manage her marriage life with Gangse who is a wanderer in the lower class and does her best to keep the society's rules for the deceased, after he dies by the curse of Jansung.

This is when her sex is used as the means to solve the realities of life.

However,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it is not the way of self-abandonment, but the way of expectation for new life.

The sexuality of Ongneo is not extorted and used by male in one-sided way, but it works as the means of reality as well as the root of life. Such a sexuality of Ongneo obviously violates the ruling ideology of a male-centered society in Cho-sun dynasty. The sexual activeness of women means only degradation in the male-centered social system.

In spite of such a distorting view, her sexuality that shows the positiveness of her life and the source of that positiveness is definitely contributed to make her vigorous character.

Although the sexuality of Ongneo is instinctive and unconscious resistance rather than spontaneous and self-oriented gestures, the positiveness of her sexuality that she shows as the root of life is a valuable outcome that Bungangse-ga achieves in the male-centered perverted narration.

**key words** : the narrator's dual view, a lewd woman, a woman from the lower class, a sexuality, the means of survival, the source of life.

■ 위 논문은 3월 30일 투고되어, 4월 20일 심사 완료 후, 5월 3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